

# EBS교재 문항 통째로... 학교도 학생도 재시험 '생고생'

## 시험문제 베끼는 교사들

### 〈상〉 실패와 문제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물리과목 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참고서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해 논란이 일었다. 학교측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지난 10월 광주의 다른 사립고교에서 국어교사가 독서과목의 시험문제를 사설 문제은행에서 절반이나 베껴 출제해 이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까지 진행했고 교사들의 출제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A고교 2학년 물리 중간·기말고사 문제 대부분이 'EBS수능특강 물리학1' 교재에 실린 문항과 똑같이 출제됐다"고 18일 밝혔다.

## 광주 사립고교서 잇따라 발생

### 학교는 출제 문제 파악도 못해

### 업무 과다·역량 부족 등 원인 지적

이에 학교측은 재시험(기말고사 14일, 중간고사 21일)을 결정했고, 재시험 대상학생은 8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대응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기말고사를 치른 후 한 학부모가 2학년 물리시험이 참고서를 베껴 출제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측은 9일 25문항 중 14문항이 EBS교재와 똑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12일 또 다른 학부모가 '14문항 뿐 아니라 전체가 문제집에서 출제된 점과 2학기 물리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20문항 중 일부를 수능특강에서 베껴 온 것 같다'는 내용의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접수했다.

학교측은 재 조사 결과 2학년 2학기 물리 중간고사 20문항(객관식 10문항, 서술형 10문항) 중 객관식 10문항과 서술형 5문항을 '2023학년도 고3

EBS수능특강 물리학1' 교재에서 베껴 온 것으로 확인했고, 2학년 2학기 물리 기말고사 25문항(객관식 25문항) 중 14문항은 '2023학년도 고3 EBS수능특강 물리학1', 나머지 11문항은 '2022학년도 고3 EBS수능특강 물리학1'에서 베껴 온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학교측의 조사로는 어떤 시험에서 몇 문항을 그대로 출제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수능의 중요성을 생각해 EBS교재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주 말이 끼어있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죄송하다. 해당 교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10월에도 광주의 다른 사립고교에서 '독서' 교과 시험 출제를 맡은 교사가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을 베껴서 출제했다.

교사와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행정 업무 과중', '교사로서 금지 상설과 안일함'을 지적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은 대중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행정업무는 잘못하면 지적받는다"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싶다', '행정 업무 보는 틈틈이 학교 수업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가 많아 정작 중요한 학생 교육에 소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전직 고교 교사는 "시험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교사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린 것이다"며 "교권이 추락하고 일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면서 '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문제를 베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신 반영에 따른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의 한 예고 교사는 "내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변별력을 위해 '킬러 문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독창적인 킬러 문제를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좋은 문제를 만들어도 학원에서 학교 선생들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복사처럼 만들고 있는데도 교사들이 만든 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무를 요구한 교사는 "예전에는 한 문항에서 오류가 나오면 복수정답 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무

조건 재시험을 본다"며 "이렇게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문제의 변별력도 갖춰야 하다보니 그냥 문제를 베껴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 하나하나에 예민한 상황이다"며 "일부 교사는 혹시나 비슷하게 출제될까봐 다른 학교·학원의 문제집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야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일이 많아서 문제를 베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열심히 시험 문제를 연구하는 다른 교사들을 욕보이는 일이고 교사가 역량 부족으로 자기 책임을 게을리 한 것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될 시험문제 베끼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학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감사를 벌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골프장 탈의실서 지갑 훔쳐

### 현직 경찰관 불구속 입건

광주의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다른 이용객의 사물함을 열고 지갑을 훔친 경찰관 A씨(경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갑에는 현금 500만원과 수표 200만원 등 총 700여만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서부경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범행 전날 야근을 한 뒤 비번일 때 골프장을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이날 골프를 치지는 않고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B씨가 샤워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0여분 뒤 골프장 측에 "분실 지갑을 습득했다"며 700만원이 든 그대로 지갑을 돌려줬다. 다만 A씨는 지갑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했으며, B씨가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 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터라 덮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 "채무자를 쫓아 골프장에 갔는데, B씨 인상착의가 채무자와 비슷해 신분 확인차 사물함에서 지갑을 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절도 혐의 수사와 별개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야호! 신나는 눈썰매 광주에 최대 18cm의 눈이 내린 18일 서구 쌍촌동의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 대안학교 학생 상습폭행·학대... 교장·교사 8명 기소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붙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수의 한 대안학교 교장 A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내와 기숙사 등지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

소됐다. 일부 학교 관계자는 새벽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장 A씨는 생활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39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태양광 설치 계약금 175억 챙긴 일당 검거

### 해남·고흥 등 농민 854명 피해

### 31명 중 총책 등 13명 구속기소

경찰이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금을 받아 17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남·고흥 등 전남지역 농민 300여명을 포함해 전국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시설 설치 계약금을 받아 챙긴 일당의 총책 A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해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읍·면 단위의 농민들에게 1년에 3000만원의 고소독을 보장한다며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령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10%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 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만 상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농민들을 속였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설비 공사가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에게 속은 농민들은 가구당 180만원~1억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남지역에서 A씨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전국에 접수된 570건의 태양광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이름만 변경하고 같은 일당들이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확인해 7곳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고소를 하자 법인을 4차례 변경하면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직원에게 폭언...여수 사립초 행정실장 해임

### 같은 법인 중학교 행정실장은 강등

여수의 한 사립학교 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행정실장들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다 해임과 강등 등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수의 A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고성을 하는 등 갑질 문제가 불거져 해당 학교법인이 자체 조사를 벌

여 지난달 30일 해임 조치했다.

또 같은 학교법인 B 중학교에서도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정실장에게 법인 측이 중징계(강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적으로 사립관계자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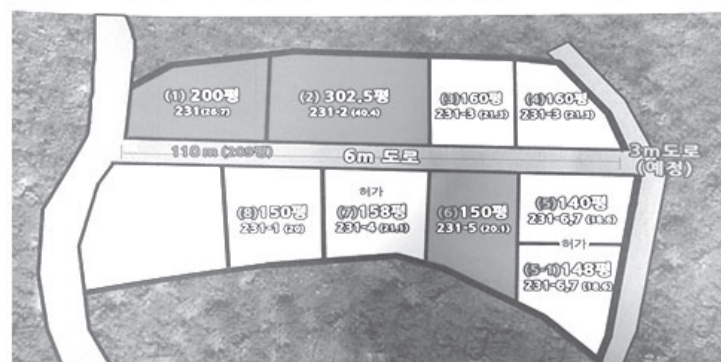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6670-9800

010-2614-9801